종교 화합 징검다리 20년… 대사회 사업 확장 추진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20년 성과와 향후 비전은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창립
예술제 등 종교간 화합사업 활동
사회 갈등마다 종교 메시지 전달
11월 24일 기념식 및 음악회 개최

(사)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가 20돌을 맞았다. 불교 · 기독교 · 천주교 등 7대 종교지도자들이 종교의 벽을 허물고 사회 정신적 토대 구축을 목표로 종교간 유대를 증진시켜온 20년이었다.

사단법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의장 김희중, 이하 종지협)는 11월 24일 여의도 루나미엘레 컨벤션홀과 여의도 KBS 홀에서 창립 20주년 기념식 및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 등 각 종교 대표들이 참여했으며, 공동대표의장 김희중 천주교 대주교가 환영사를 전하며 지금보다 더 발전된 종교화합과 대사회역할을 다짐했다.

종지협은 IMF 외환위기 사태로 혼란스러웠던 1997년 3월 설립됐다. 국민의 심성 계도, 종교 화합을 통한 21세기 새 시대의 번영 기반 구축을 발원으로 만들어진 종지협은 7대 종교(불교 · 기독교 · 천주교 · 원불교 · 유교 · 천도교 · 민족종교)가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종교연합기구이다. 불교는 제1대(월주 스님)를 시작으로 5대(정대 스님), 6대(법장 스님), 7대(지관 스님), 9 · 10대(자승 스님) 등 총 6번 의장직에 올랐다.

'종교 화합'을 기치로 내건 만큼 종지협은 종교간 화합을 위한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왔다. 실제 종지협의 첫 행보는 창립 원년인 1997년 9월 개최한 '대한민국종교예술제' 였다. 종교예술제는 음악제 · 미술제 · 영화제 · 학술세미나를 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 5개 종교가 돌아가며 연달아 개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예술이라는 연결고리로 종교간 대화와 화합의 장을 만들겠다는 취지였다.

이 예술제는 2006년, 지관 스님이 7대 의장으로 추대된 이후 지역으로 확장됐다. '종교예술제' 라는 이름으로 서울서만 개최하던 것을 '지역종교 문화행사' 와 '대한민국 종교문화축제' 로 나눠 곳곳에서 진행한 것이다. 이 축제는 오늘날까지 꾸준히 종교인 화합의 매개로 작용하고 있다.

2010년부터는 '이웃종교체험 성지순례' 가 시작됐다. 이 순례는 이스라엘을 시작으로 로마, 캄보디아, 중국, 러시아, 터키 등을 거쳐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또한, 종지협은 사회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종교적 메시지를 대중에 전달하기도 했다. 시작은 1997년 12월 '경제위기 극복 위한 대국민 호소문' 발표였다. 이후 2000년에는 '종교단체환경정책 실천협의회' 를 발족해 지속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를 통해 환경부와 함께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2002년에는 '공명선거' 홍보활동을 시작했다. 국민들의 선거 참여를 독려하고 깨끗한 선거를 만든다는 목적서 시작된 이 활동은 현재까지도 매년 선거때마다 진행되고 있다.

2005년부터는 독도 문제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일본의 독도 주권 침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대표단이 독도에 격려 방문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다. 2014년에는 세월호 희생자를 위한 기원문을 발표했으며 2015년에는 메르스 의료원을 방문, 1천만원의 위문금도 전달했다.

종지협은 이번 20주년을 계기로 과거 행적을 돌아보고, 앞으로 한걸음 더 내딛을 계획이다. 특히 사업진행에 있어서 △종교간 화합과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 △윤리 · 도덕성 회복 등 국민의식 개혁을 위한 사업 △통일 대비 민족동질성과 상호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사업에 방점을 찍을 방침이다.

불교 측 종지협 주무부서인 조계종 사회부의 부장 진각 스님은 "한국은 다종교 사회이기 때문에 종교간 화합과 대화는 더욱 중요하다. 이는 미래의 평화를 위한 바탕이 된다"면서 "20년 동안 7대 종교가 한 목소리로 같은 곳을 지향한 것은 종교사적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종교지도자가 솔선수범하면 해당 종교 신도들 역시 이를 배워 실천하게 된다"면서 "향후 종지협은 소외계층 등 약자들에 대한 배려와 희망을 줄 수 있는 대사회 사업을 전개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형 기자

종지협이 걸어온 20년

1997. 3. 7대 종교 모여 창립
9. 제1회 종교예술제
12. IMF위기 극복 호소문
2000. 1. 환경정책 실천協 발족
2005. 3. 독도 주권침해 기자회견
2010. 11. 연평도 무력도발 성명
2014. 4. 세월호 희생자 기원문
2015. 6. 메르스 의료기관 격려
12. 저출산극복 종교계 선언


2013년 9월 서울 청계광장서 '마음껏 사랑하라' 는 주제로 열린 제17회 대한민국종교문화축제서 각 종교 대표들이 기념떡을 함께 자르며 만면에 미소를 띠고 있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선원빈 기자상에 本紙 '이젠 Z세대다'

노덕현 차장, 불교언론문화상 이어 2관왕

"미래세대 전법 논의 기여"
김주일 편집국장 근속상



올해 한국불교기자상 대상인 선원빈 기자상에 본지 노덕현 차장〈사진〉의 특별기획 '이제 Z세대 포교다' 가 선정됐다. 노 차장의 기획기사는 앞서 조계종 불교언론문화상 신문부문 최우수상에 선정돼 2관왕의 쾌거를 달성했다.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김현태, 이하 불기협)는 11월 21일 기자상 심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2017년 한국불교기자상 수상자를 선정했다.

이날 심사위원회는 노 차장의 특별기획 '이젠 Z세대 포교다' 를 대상인 선원빈 기자상에, 이병철 제주불교신문 기자의 '쓰레기 없는 행복 세상 만들기' 를 기획보도 부문에, 정준호 BTN 기자의 '분노범죄 불교적 대안은' 을 취재보도 부문 수상작으로 각각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이젠 Z세대 포교다' 는 불자인구 300만 명 감소 시대를 맞아 어린이 청소년 포교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SNS가 생활화된 10~20대인 이른바 'Z세대' 의 포교방안을 모색한 시의적절한 기사"라면서 "조계종 포교원 내 미디어전법팀 구성 논의가 이뤄지는 등 미래세대 전법에 대한 새로운 논의의 장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 수상의 이유를 설명했다.

올해 기자상에서는 취재보도 부문 8편, 기획 · 해설 부문 5편 등 모두 13작품이 접수됐으며, 심사위원회에는 최정희 前 현대불교신문 이사, 김관규 동국대 교수,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가 참여했다.

이에 앞서 불교기자상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원우)는 11월 7일 회의를 열고 김주일 현대불교신문 편집국장, 이재형 법보신문 편집국장을 근속상 수상자로 결정했다.

한편, 한국불교기자상 시상식은 12월 4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종로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5층 더부페에서 개최된다.

신성민 기자

포항지진 피해 위로 종교계 앞장

후원금 모연 · 생필품 지원 등
이재민 돕는 데 발 벗고 나서

포항 강진으로 인해 생활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돕고자 불교 등 종교계가 발벗고 나섰다.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11월 23일(재)아름다운동행에 지진피해 복구 및 구호성금 2000만원을 기탁하고, 생수 1만5천병과 간식류 등을 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 전달했다. 지현 스님은 "더 일찍 성금을 전달했어야 하는데 신도들이 십시일반 구호성금 모으길 원해 조금 늦어졌다. 이제라도 이재민들에게 전해져 고통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20일 '포항 지진 위로서한' 을 내고 "하루 빨리 피해 복구가 이뤄져 안정된 삶을 찾을 수 있길 기원한다"며 "포항지역에 더욱 안전하면서도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종단의 신도분들이 협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태고종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은 19일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의 태고종 사찰을 방문하고, 종도들의 위문 성금을 전달하며 위로의 뜻을 전했다. 태고종 측은 지진으로 인해 포항 법주사, 금강사, 청정심원 등이 피해를 입었다. 이에 편백운 스님은 피해 부분을 직접 살펴보고, 주지스님들을 위로하면서 빠른 피해 복구를 위해 힘쓰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20일부터 시작된 승려연수교육에서 지진 피해 지역 돕기 성금을 접수, 추가로 피해 사찰을 지속적으로 도울 계획이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NGO 더프라미스와 함께 흥해실내체육관에 상담부스를 설치, 재난 트라우마 대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6일 오전 현장에 급파된 조계종긴급구호단은 불국사,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경주시장애인보호작업장 등 지역 사찰 및 단체와 연계해 구호지원 부스를 설치하고, 이재민들을 위한 구호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묘장 스님은 "재난은 물질적인 피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마음 깊은 곳에 남은 상처를 보듬고 불안과 공포를 해소해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구호물품 지원과 함께 심리 치유 활동에 주목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김주일 · 윤호섭 · 박진형 기자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구호지원부스를 설치해 이재민들에게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동국대 부속유치원 '50대 유치원' 선정

교육부 주최 사업서 성과

동국대 부속 유치원(원장 김혜순)이 전국 50대 우수 유치원으로 선정됐다.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교육부가 주최한 '전국 50대 교육과정 우수 유치원 선정사업' 에서 동국대 부속 유치원이 우수 유치원으로 선정됐다"고 11월 17일 밝혔다.

교육부의 '전국 50대 교육과정 우수유치원 선정사업' 은 누리 과정에 충실하면서도 지역 특성과 유치원 고유의 교육철학이 잘 융합된 우수 교육 과정을 선발 · 발굴하는 사업이다. 전국 9000여 곳의 국공립 · 사립 유치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사업에서 동국대 부속유치원은 교육과정 계획, 실행, 평가 등 지표 심사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혜순 동국대 부속 유치원장(유아교육학과장)은 "50대 유치원 선정은 동국대학교 부속유치원의 교육과정의 질적 우수성을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쾌거"라며 "교육기관으로서 동국대 유아교육과, 불교아동보육학과 등 관련 학과가 뛰어난 현장기관으로 함께 평가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사단법인 대한불교선재종

수행의 문턱에서 서로 위로하고 탁마를 함께하실 도반의 인연이 없고, 어느 종단에 이 한 몸을 의지해야 할지 망설이시는 분! 또는 발심출가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시는 분! 출가는 했는데 은사와의 인연이 박복하신 분! 도첩이나 호계첩이 없는 분! 여법한 각종의식 진행방법을 모르는 분! 등 승려로서 갖추어야할 덕목을 저희 종단에서 교육하고 지도하여 정법수행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 있으니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총무원장 성곡 지운

사단법인 대한불교선재종

● 총본산 : 무등산 미륵사 (광주광역시 동구 동산길7번길 5-11)
● 부 설 : 사찰음식전문점 수자타
● 총무원 : 광주광역시 동구 동산길7번길 5-11
전 화 062)234-9834 | 팩 스 062)223-9233
핸드폰 010-4152-4744, 010-5479-5607

